



오늘의 말씀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창세기 18장 21절

오늘의 주요 기사

2 하나님의 선교 특집
3 어린이함글함글 - 성경문해력
4-5 진중세례식

6-7 필리핀 몬탈반 선교
8 필리핀 청소년 초청
9 교사일기

10 찬송가 이야기
11 십자말풀이
12 공동체소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여름”

여름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계절의 더위만큼이나 교회의 열정도 뜨겁습니다. 부서마다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비전트립, 성지순례 등 다양한 여름 사역이 한창입니다. 아이들은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장년들은 땀 흘리며 복음을 나누고, 성도들은 먼 땅을 찾아 교회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참으로 은혜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에 잠긴 이웃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레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도 있고, 복구조차 막막한 채 망연히 빗속을 서성이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조차 버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풍기 하나, 그늘 한 점 없이 더위에 지친 노인들과 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이 은혜의 계절을 하나님의 선교의 계절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다면, 이제 흘려보낼 차례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헌신, 물질과 시간,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나누는 사랑 안에서 복음은 살아 움직입니다.

성경학교에서 배운 ‘예수님의 사랑’을, 수련회에서 다짐한 ‘예배자의 삶’을, 비전트립에서 목격한 ‘세계 속 고통’을, 성지순례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풀어내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진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의 고통에 응답하며, 작은 실천이라도 기꺼이 감당하려는 믿음의 결단이 절실한 때입니다. 에어컨 바람이 아닌 기도의 바람으로, 차가운 무관심이 아닌 뜨거운 사랑으로 이 여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이 이웃에게는 시원한 그늘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고통받은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여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백성으로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들고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움직이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어, 여름의 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선명히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 특집

소금과 빛이 되는 가정(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가정)(마5:14)

2025년 함글함글은 올해 교회 표어인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에 맞게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이야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지난 호 '섬김으로 본이 되는 가정'에 이어 이번 호에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가정'에 대해 나눕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선한 영향력의 소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14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며, 동시에 사명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그 존재 자체로 무너진 도덕과 희망을 회복시키는 소금이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소금과 빛의 성품이 처음 훈련되고 실천되는 자리이며, 사회와 교회, 열방으로 퍼져 나가는 선한 영향력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은 세상 속에서 진리의 소금 맛을 내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가정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의 특징

(진리 위에 세워진 가정) 빛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방향을 잡는 가정은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자녀를 양육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가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집은 다르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정직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가정) 빛은 숨김이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가정은 삶이 투명하고, 관계가 진실하며, 사랑이 중심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이웃과 친구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세상 속의 불신과 무관심 속에서도 따뜻한 신뢰와 섬김이 살아 있는 가정은 그 자체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는 가정) 소금은 맛을 내고, 상하지 않게 하는 보존의 역할을 합니다. 선교적 가정은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붙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감사하고, 고통 속에서도 나누는 모습을 통해, 주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 믿음은 곧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세상에 맛을 더하는 삶의 향기를 내는 가정) 소금은 음식에 맛을 더하듯,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은 세상에 의미와 풍요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웃을 위한 작은 배려, 약자를 위한 따뜻한 관심,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실천하는 가정은 그 자체로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무미건조해질수록, 이러한 가정은 주위 사람들에게 삶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살아 있는 복음이 됩니다. 소금처럼 사라져도 남는 맛처럼, 그들의 선한 행실은 오랫동안 기억되고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가정을 위한 실천 방안

(가정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습관 세우기) 빛은 말씀이고, 소금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삶을 비추는 가정은 어둠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짧더라도 매일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그 가정은 빛의 중심이 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직 실천하기) 정직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자녀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해”라고 가르치기보다, 부모가 일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본을 보일 때,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 됩니다. 거짓 없이 살아가는 가정은 세상에 신뢰와 감동을 줍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의 실천) 이웃을 돕고, 약자를 돌보는 삶은 빛과 소금의 실천입니다. 김치를 나눠주고,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고, 아픈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밥 한 끼를 나누는 일상이 곧 선교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모여 ‘이 가정은 사랑이 있는 집’이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은혜를 나누기) 빛나는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정입니다. 실수한 가족을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고 품는 모습, 아픔을 감추지 않고 나누며 위로하는 태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런 모습이 복음의 향기를 품은 삶입니다.

결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선교적 가정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 세상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빛이 됩니다. 그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잃은 자들의 이정표가 됩니다. 또한 소금처럼 생명을 보존하고, 진리의 맛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은 말없이도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작은 행동 하나, 용서하는 말 한마디, 정직하게 사는 삶의 태도가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실천해 가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진원 안수집사 / 함글함글



어린이함즐함울
성경문해력

말씀을 쏙쏙! 어린이를 위한 쉬운 성경 이야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는 바위

시편 18편 2절

함즐함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시편 18편 2절

개역개정

어려운 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야.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으로 자주 나와

반석 아주 크고 단단한 바위야.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

요새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만든 튼튼한 성이나 안전한 곳이야. 전쟁 때 숨을 수 있는 안전지대야.

건지시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꺼내 주고 도와주시는 분

쉽게 바꾼 말씀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숨을 수 있는 튼튼한 바위예요
무서울 때 도와주시는 든든한 성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꺼내 주고 도와주시는 분이예요

이렇게 쉬워?

말씀 적용하고 함께 기도해요

말씀 쏙쏙 적용하기

한 번쯤은 무서운 꿈을 꾸거나, 혼자 있을 때 무서울 때가 있었지?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튼튼한 바위처럼 우리와 함께 계셔. 또 친구가 나를 놀릴 때나 시험이 어려워서 걱정일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꼭 안아주시고 도와주셔.

무섭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해보자

하나님,
제가 무섭거나 슬플 때, 하나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고 튼튼한 바위, 든든한 요새처럼 지켜주세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용기 내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즐함울
어린이청소년기자단

<함즐함울 어린이청소년 기자단> 모집

홍보출판부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기자단은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직접 발굴하고, 신앙 안에서 경험한 감동과 배움을 글로 나누는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생까지로, 글쓰기를 좋아하거나 신앙에 대한 관심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자단이 되면 교회에서 진행되는 행사나 모임, 예배 등을 직접 취재하고 이를 기사로 작성하거나, 신앙 서적이나 찬양, 영화 등 유익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글을 쓰는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가정이나 학교, 친구 관계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나누는 글도 환영합니다. 인터뷰, 사진 촬영, 카드뉴스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 자신의 재능을 여러 방면에서 발휘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활동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로, 기자단으로 선정되면

교회 신문 『함즐함울』에 정기적으로 기사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글쓰기와 기사 작성에 대한 간단한 교육도 제공되어, 처음 도전하는 친구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자단에 지원하려면 7월 31일까지 이름, 나이, 부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내가 함즐함울 기자가 되고 싶은 이유’를 적어 함즐함울 대표 이메일(pclhamletter@naver.com)로 보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글로 기록하고,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이 소중한 여정에 함께할 친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신앙의 감동을 글로 나누는 일,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함즐함울

군경선교부
진중세례식

하나님의 군사, 세상 속 빛으로!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며, 군경선교부에서는 6월 19일에 열린 ‘75주년 6.25 상기 기독교장병 구국성회 결연축제’에 동참하였습니다. 군에서 진중세례를 받고 제대 후 믿음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장병들에게 국내선교위원회 각 부장님들과 함께 주님의교회 부스에서 참가한 장병 100명에게 함글함글 501호, 주님과함께 6,7월호, 음로 및 다과 등을 주며 열린 홍보를 통해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또한 군경선교부 주관 수요일예배(6/25)에서는 ‘십자가 군병들아’ 특송과 17사단 군종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어느 때보다도 나라 사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군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임을 일깨워 주는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6월 28일 6사단 신병교육대대 진중세례식 전, 안보 현장인 철원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당시 흔적의 노동당사(북한군 지휘부)와 철원 역사문화공원의 근현대사, 분단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전쟁의 폐허를 그대로 간직한 흔적들이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6사단 내에 위치한 1975년 북한군의 기습남침 야욕의 산물인 남침용 땅굴을 확인하면서 저들의 무력 적화 통일이 얼마나 잔인하고 끊임없는 도발 계획이었는지를 목도하였습니다. 이런 현장을 통해 잊혀져 가는 안보불감증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꼈고, 다시는 이 땅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신병교육대대 실로암교회에 도착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장병들을 주님의교회 성도들이 현관에서 박수와 힘찬 응원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청년부 한혜원 성도가 인도한 찬양 시간에는 군사훈련에 지친 장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치 천국에 있는 듯 마음껏 기뻐뛰는 모습에 감동이었습니다.

군에서 처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86명의 용사들은 배운 목사님의 요한복음 1장 12~13절 말씀으로 선포된 ‘자격은 없지만 특권은 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식어가는 신앙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 세례받은 장병들이 십자가 군병으로서 군 생활하는 동안,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힘을 얻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반기 동안 진중세례식에 함께했던 모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군선교를 위해서 동참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윤숙영 권사 / 군경선교부



군경선교부
진중세례식

청성! 최전방에서 울려 퍼진 복음의 함성

청성~! 철원군 지역 휴전선 최전방 GOP와 GP 경계임무 사단인 청성 부대의 경례 구호입니다. 6.25 전쟁 당시 가장 용맹했던 부대인 6사단은 무수한 전공을 세우고, 국군과 UN군 중 가장 먼저 압록강변 초산까지 진격하여 압록강 물을 떠 이승만 대통령께 헌수했던 용맹무쌍한 부대입니다.

6월 28일 토요일, 그곳 신병 교육대에서 신병교육을 수료한 86명의 병사의 세례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까지 교회 앞 주차장에 대기 중인 버스를 타고 철원으로 향했습니다. 부대를 방문하기 전, 인근 유적지를 둘러보았는데 총탄과 포탄 자국이 무수한 3층짜리 콘크리트 구조물인 '철원 노동당사'였습니다. 6.25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이곳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뮤직비디오를 찍은 장소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도착하자 한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공간을 뚫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노동당사가 있다는 것은 이곳이 6.25 때 북한 땅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구나! 나에게는 '래프팅', '잔도길', '오대미'로 기억되는 이곳이, 한 때는 북한 땅이었구나! 아군이 많은 피를 흘리며 거듭거듭 고지를 탈환했던 곳. 산등성이가 하얗게 될 만큼 치열했던 백마고지, 화살머리고지, 정치 인사들을 끌고 와 고문하고 목숨을 빼앗았던 악명 높은 건물이 자리한 이 평화로운 땅이 북한 땅이었구나! 오싹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눈을 드니 노동당사 건너편에 번영했던 철원의 옛 모습을 복원한 철원 역사문화공원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생활 규모를 짐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모노레일을 타고 해발 362m의 소이산 전망대에 올라 철원평야와 비무장지대(DMZ)를 조망할 수도 있었지만, 다음 일정 때문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1975년에 발견된 남침용 땅굴인 제2땅굴을 방문했습니다. 흐린 날씨와 여우비 속 운무에 가려진 봉우리들이 신비감을 더했습니다. 총길이 3.5km로 1시간에 3만 명의 군 병력이 이동할 수 있는 규모라는 점에서 놀라움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수상한 소리를 감지한 우리 군인들의 촉으로 지하 500m를 파 내려 간 끝에 이 땅굴을 발견했고,

수색 도중 국군 7명이 북한군에 의해 전사했다는 이야기에 숙연해졌습니다. 우리는 수직 갱도를 따라 내려가서 북한군이 판 땅굴 입구와 만나는 지점까지 가보았습니다.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던 침략의 야욕과 그것을 막기 위해 목숨을 던졌던 희생의 자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점심은 설렁탕 혹은 비빔밥으로 먹고 드디어 6사단 신병대대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을 연습하고 환영 대열에 서서 오늘 세례를 받는 사랑하는 아들들을 맞이했습니다. 단상에는 한혜원 자매가 특별히 찬양을 인도했고, 대한의 젊은 병사들은 열광했습니다. 과거 1사단에서 군종 목사로 사역하시다가 대위로 전역하신 배운환 목사님의 열정적인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은 없어도 특권은 있다는 주제로 요한복음 1장 12~13절 복음의 핵폭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의 자녀입니다. 죄로 인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세례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MBN 아나운서 한혜원 자매는 그 미모와 재능으로 갈 데 많고 오라는 곳 많아도 주님 부르심과 필요를 귀히 여겨 이 군부대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찬양을 인도하는 '여러분의 누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받은 존재입니다. 한 번 바뀐 신분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오(직) 예(수)~!로 당당하게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운무에 가린 최전방 산봉우리도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고, 땅도,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어린 청년들이 가족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군 생활을 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생의 승리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돌아왔습니다. 그 마음을 가득 담아 청성! 윤경자 집사 / 군경선교부



의료선교부
필리핀 몬탈반 의료선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몬탈반 의료·이미용 선교

필리핀 몬탈반에서 진행된 의료·이미용 선교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사역을 마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해외의료선교는 의약품과 장비의 세관통과가 항상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의료선교에서는 긴 시간 여유를 두고 세관 통관이 잘된다는 배를 이용해 일찍 의약품 등을 화물로 보냈습니다. 도착 소식만 기다리는 중, 필리핀 항구에 도착한 일부 국가의 화물에서 마약이 발견되어 항구의 모든 컨테이너에 대한 세관 절차가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역일 전에 의약품이 도착할 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긴급으로 한정된 의약품과 기구를 다시 준비하거나 의약품이 없는 의료사역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사역일은 다가오는데 현지 상황은 변함이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합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으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를 기도로 인도하시며 선교사역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마침내 의약품이 선교 일정 이틀 전에 배달되어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 비가 계속 많이 내린다는 예보와 달리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사 시원하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충분한 사역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이 많았으나 모든 분들이 힘든 일정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심장병 치료를 받은 필리핀 어린이들이 몬탈반 시청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환영받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양동훈(은퇴)장로님께서 선교사역을 위한 예배를 준비하시고 김도묵(은퇴)장로님, 김성구(은퇴)장로님, 홍완식장로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역의 의미와 깊이를 더 해주셨습니다.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더 많은 이들을 돌보지 못한 진료의 제한, 여전히 열악한 선교지 환경 등은 우리의 계속된 기도제목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앞으로의 사역 활동을 통해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선교사역은 감동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광우 안수집사 / 의료선교부장

• 사역통계

내과: 198명 성형외과: 17명(수술 7) 통증재활: 97명
치과: 47명(발치 63) 이미용: 75명 (총 434명)

• 참석자

의료팀: 홍완식 김선화 김훈 강석구 박정실 박준 최미경 이광우
이미경 김현철 박에이미 유지현
이미용팀: 유현순 차정숙 최중경
휠드런스퓨처재단: 김도묵 양동훈 김성구



이미용선교부
필리핀 몬탈반 이미용선교

하나님이 하십니다

38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여름, 저는 감기몸살로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진료와 약으로도 차도가 없었고, 결국 생전 처음으로 수액을 두 번이나 맞으며 겨우 출발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상태로 해외 단기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지 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떠나는 팀원들 또한 각자 혹은 가족의 건강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기에, 이렇게까지 방해가 있을까?’ 체력도 부족하고, 예정했던 이미용 연습도 계획만큼 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른 새벽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 몬탈반에 도착한 순간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모든 염려는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직접 보고, 마음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내내, 그리고 돌아와서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과거 직장 생활 중에도 필리핀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지만, 선교의 마음으로 바라본 그 땅은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수도 마닐라조차도 여전히 발전이 더딘 모습이었고, 몬탈반 선교지 주변은 더 더욱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 있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받으러 오신 분들은 따뜻하고 친절하였고, 특히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은 지금도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이인로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삶이었습니다. 출국 전에 선교사님의 history를 알고 있었지만, 직접 현장에서 그분들을 뵈고 예배와 나눔을 함께하며 그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사랑하고 섬기고 계신지를 보고 나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최근 갑상선 질환까지 더해져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 상태였지만, 여전히 하루하루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단기선교자로 온 제게, ‘나는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며, 돌아가서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라는 깊은 질문을 안겨주셨습니다.

저희 팀이 하는 이미용 봉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데이케어센터, 요양원등 복지기관에서 해온 봉사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고, 준비해 온 기술들을 활용하며 섬길 수 있었습니다. 머리를 손질해 드리는 동안 건네받은 따뜻한 눈빛과 짧은 감사의 인사 한마디는 오히려 제게 더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는 섬기려 간 자리였지만, 결국 더 많이 받고 돌아온 사람은 저였습니다.

체력도 부족했고 준비도 완전치 못했던 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친히 보살피고 일하시며 선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 중에, 선교에 대한 마음은 있으나 상황이나 자신감 부족으로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준비가 다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채우시며 일하십니다. 저도 연약한 상태에서 순종했을 뿐인데, 결국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부르심 앞에 망설이지 마시고, 용기 내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걸음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체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최종경 집사 / 이미용선교부



어와나 트렉·저니
필리핀 몬탈반 해외교류

한국에서 만난 신앙과 문화의 감동

청소년숲 어와나 트렉·저니 부서는 지난 7월 17일(목)부터 23일(수)까지 6박 7일간, 필리핀 몬탈반 지역의 LHCA 학교와 모리아교회 학생 4명을 초청하여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 신앙과 문화, 그리고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청소년숲과 필리핀 몬탈반 지역과의 인연은 2023년 단기선교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후 2024년에는 LHCA 학교의 교사 두 분이 한국을 방문하여 연수를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그 관계가 더욱 확장되어 필리핀 학생 네 명이 직접 한국을 찾게 된 것이다. 이번 연수는 청소년숲 어와나 트렉·저니 부서가 중심이 되어 기획하고 진행했으며, 많은 교우들의 동참으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졌다.

학생들은 주님의교회 여름 수련회(2박 3일)에 참여하여 한국 청소년들과 함께 말씀과 찬양, 교제를 나누며 신앙의 깊이를 더했다. 또한 서울 시내를 투어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했고, 가정집에서의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의 따뜻한 정(情)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일정은 세심하게 준비되었으며, 여러 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의 섬김으로 안전하고 은혜롭게 마무리되었다. 이번 한국 연수는 단순한 방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는 선교적 교류의 장이었다. 필리핀 학생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긴 모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열매로 맺히게 될 것이다. 청소년숲은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적 신앙 교류를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백양선 전도사 / 어와나 트렉·저니



어와나 트렉·저니
필리핀 몬탈반 해외교류

잊지 못할 여정과 감사의 인사

한국에 올 때 어떤 마음이었어?

-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 정말 믿기지 않았고 꿈만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에 가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친절한 분들을 만나게 되어 너무 감사했어요.
- 저는 정말 설렜어요. 해외로 여행하는 것이 처음이기도 하고, 한국은 제가 꿈꿔왔던 나라였기 때문에 한국에 가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뻐요.
- 정말 신났고 처음으로 한국에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어떤 것을 기대했어?

- 한국 사람들은 질서정연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한국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 재밌을 것 같았고, 사람들도 친근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또 교통 체증이 적고 주변이 깨끗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 한국에 대해 기대한 것은 즐거움이 있고, 주변 환경이 깨끗하며, 사람들이 매우 질서 있고 친절하다는 점이었어요.
- 한국은 모험과 즐거움이 가득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가장 재밌던 장소는?

- 롯데월드와 여름 수련회가 재밌었어요.
- 아쿠아리움과 롯데월드였어요. 사실 모든 곳이 다 즐거웠다고 말할 수 있어요.
- 가장 재미있었던 장소는 롯데월드였어요. 놀이기구도 많고 정말 행복했어요. 먹을 것도 다양해서 좋았어요.
- 워터파크와 롯데월드가 재밌었어요.

감동 있던 활동은?

-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그것을 삶과 연결해보는 활동이 감동적이었어요.
- 여름 수련회 둘째 날 예배 시간에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했던 순간이 감동적이었어요. 또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던 시간도 기억에 남아요.

- 가장 감동적이었던 활동은 우리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쓰는 시간이었어요.
- 여름 수련회에서 했던 게임 중 하나가 가장 좋았어요. 재미있었고, 특히 한국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 즐거웠어요.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 뚜레쥬르에서 먹었던 빵이요.
- 소금빵, 삼겹살, 치킨이 맛있었어요. 치킨은 매웠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 삼겹살과 치킨이요. 매웠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 치킨, 피자, 그리고 삼겹살요.

이번 여행을 통해 무엇을 배웠어?

- 문제가 있어도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곳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한다는 것도요.
- 제가 배운 것은,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매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예요.
- 항상 기뻐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 올 수 없었으니까요.
- 한국은 안전하고 흥미롭고 매우 깨끗하다는 거요.

마지막으로 이번 여정을 함께한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 함께한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드리며, 우리가 경험한 모든 추억을 항상 기억할게요.
-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뿐이에요. 모두가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셨고,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눈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친형제·자매처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리고 '한국을 떠나면 가장 먼저 그리울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교사일기
어와나 커비스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씨앗들

2025년 7월 5일 토요일은 어와나 커비스의 1학기 종강 날이었습니다. 아직 한글도 다 떼지 못한 5,6세 어린 아이들이 발음도 어려운 성경 구절을 매주 암송하고, 토요일 아침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썬트네실로 예배드리러 오는 이 어여쁜 아이들에게, 한 학기 동안 잘 해냈다고 칭찬하며 시상하고 인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 매주 눈물을 보이던 친구도, 아빠 껌딱지였던 친구도, 썬트네실에 들어오지 않고 도망다니던 친구도, 예배시간 중간중간 탈출을 시도하던 친구도, 찬양·울동 시간에 서있기만 하던 친구도, 이제는 예배시간이 되면 스스로 자기 자리를 찾아 앉아 마칠 때까지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지게 변화된 아이들을 보며, 짧은 한 학기 동안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참 많이 성장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_마가복음 10:14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이들을 부르시고 만나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과연 내 아이가 암송을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안고, 제 첫 아이가 5살이던 해 처음 커비스 교사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 어려운 단어도 많고, 글자를 읽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고민하다가, 매일 아침 딸아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 등원버스를 타러 가며 함께 성경 구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 생기고, 놀랍게도 성경 구절이 아이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둘째 아들도 그렇게 유치원 시절을 보내며, 성경과 암송을 점차 친근하게 익혀갔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_잠언 22:6

하신 말씀처럼, 아이의 마음에 말씀이 뿌리내리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께서 함께하셨음을 느낍니다. 저 또한 커비스에서 교사로 섬기며 교사로서의 자격과 자질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제 관점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자만했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도우며 함께 성장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_마태복음 18:5

모든 면에서 자격을 갖추고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함께하시며 채워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크고 작은 기적 같은 시간들을 온몸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커비스 전도사님과 디렉터 선생님, 그리고 모든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고, 빈 곳은 채워지며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됨을 경험합니다. 제 시선이 닿고 제 발이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순간순간마다,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종강한 지 이제 겨우 한 주가 지났는데도, 커비스 선생님들은 벌써 토요일 오전이 허전하다고 하시고, 아이들도 무척 보고 싶습니다.

무더운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잠시 쉬의 시간을 가지며, 커비스 아이들도,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모든 커비스 가족들이 건강하게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만날 시원한 가을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임이라 _고린도전서 15:58

남초롱 집사 / 어와나 커비스



찬송가 이야기

십자가를 질 수 있나(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는 우리가 얼마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되묻게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원제는 “‘Are Ye Able’, said the Master”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된 자리에 함께 앉기를 구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찬양은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말렛(Earl Bowman Marlatt, 1892~1976)이 1925년에 미국 감리교 청년대회에서 부를 찬송 한 편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신학부 학생 시절 들었던 신약학 강의 중 마태복음 20장 강해 내용을 생각하고 쓴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찬송 시를 메이슨(Harry Silverdale Mason, 1881~1964)이 1924년 학부 경연대회에 출품했던 곡을 기억하고 있던 말렛이 본인이 쓴 찬송 시와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그 곡에 붙여 부르게 되면서 찬송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쪽지로 인쇄되었고, 이후 1928년에 말렛이 공동편집한 찬송가에 처음 실리게 됩니다. 당시 이 찬송은 청년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제자의 길을 가겠다는 헌신을 고백하게 한 찬양이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말렛은 감리교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 하버드, 보스턴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이후 보스턴대학교에 재직하며 총장을 지냈으며, 1958년부터는 뉴욕시에 있는 찬송가 박물관 관장도 역임했습니다. 메이슨은 뉴욕 시러큐스대를 나와 제1장로교회와 제2장로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섬기며 오번(Auburn) 신학대학의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이 찬송은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예”하고 대답했지만, 고난과 희생의 길 앞에서 종종 뒤돌아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전제합니다. 예배와 학원 수업이 겹칠 때,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기보다 성적 거정에 먼저 반응하게 되거나, 수련회나 봉사활동 참여 대신 방학 특강을 선택하면서 “나중에 더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라는 자기합리화로 헌신의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성공을 위해 정직과 양심을 포기하고, 때로는 신앙 양보를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자녀를 양

육하며, 교회보다 스펙, 신앙보다 성적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이웃,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기보다, 익숙하고 편안한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더 편하게 느끼며, 복음의 급진성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하며,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동안 “사랑과 충성”을 다 바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찬송이 처음 불렸을 때, 수많은 청년들이 가사에 감동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자신을 다시 드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에게는 사역의 영광보다 헌신의 무게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은 이후로도 많은 부흥집회와 선교 헌신예배에서 불리며 수많은 이들의 신앙을 깨우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수없이 물으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주님의 물음 앞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은혜의 부르심을 일깨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망설이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담대히 대답합니다. “주 인도 따라 살아가면서 사랑과 충성을 바칩니다”

이 찬송은 단지 과거의 헌신을 떠올리는 노래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다시금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매일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찬송이 깊은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진원 안수집사 / 함줄함줄



461 십자가를 질 수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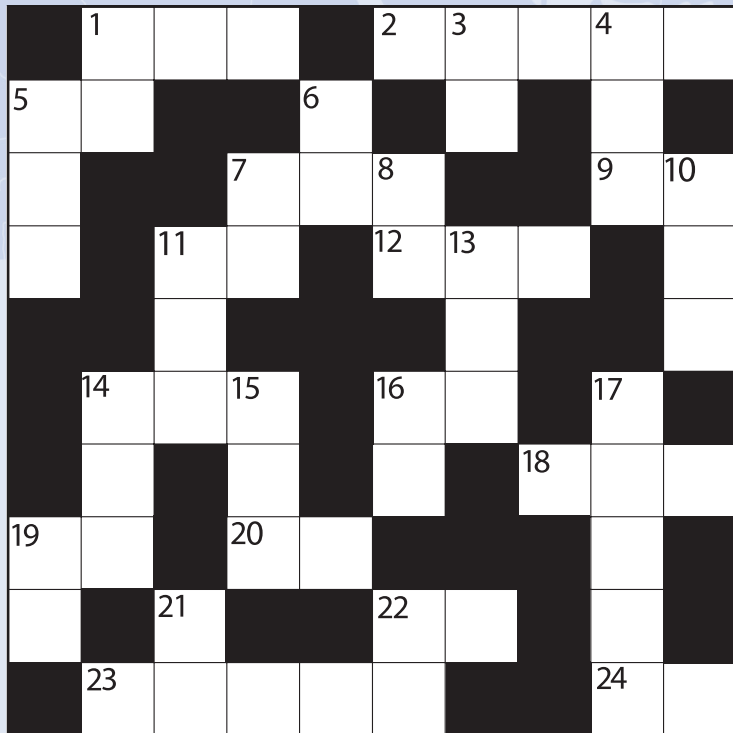
1.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2.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 받은 강도를
3.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4.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대답하였다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주께 네 영말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다 아멘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사도행전 편

이번 호는 신약의 다섯 번째 권인 <사도행전> 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초대 교회가 설립되고 이어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는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요한복음 편 정답



가로 힌트

1. 감람나무 과수원.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며, 감람원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 지역을 말한다. (행 1:12)
2. 신약시대 유대의 왕. <사도행전> 시기에는 헤롯왕의 손자 헤롯 아그립바와 그 아들 헤롯 아그립바 2세가 있었다. (행 25:13)
5.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일. 여러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일으키는 상황을 말한다. (행 12:18)
7. 고대 그리스의 항구도시. 로마 제국 시대에도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다. (행 18:1)
9. 바울 일행이 방문했던 구브로 섬의 수도. 밥 많이 먹는 명칭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행 13:6)
11.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행 4:34)
12. 예수님의 어머니. 성경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도 있다. (행 1:14)
14. 구약시대의 선지자. "여호와와 구원"이라는 뜻이다. (행 8:28)
16. 사람들이 살지 않는 거칠고 넓은 땅. 예수님은 이곳에서 40일 동안 기도를 드렸다. (행 7:30)
18. 가족 잡는 일을 하는 사람. 비유적으로는 사람들을 많이 학살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행 8:32)
19. 어떤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 주로 재판정에서 불러 사실을 묻는다. (행 1:8)
20. 외부의 위험이나 위력에 해를 입지 않도록 함. 사람뿐 아니라 자연에도 이 말을 쓴다. (행 7:24)
22. 손과 발. 때로 자신의 손발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행 21:11)
23. 아테네 서쪽에 있는 언덕.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이다. (행 17:19)
24.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어떤 것보다도 더. (행 26:5)

세로 힌트

1. 마음을 움직임. 성경에서는 성령의 세례나 영향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행 21:4)
3. 3인칭 복수. 이미 언급되어 있어 읽거나 듣는 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여러 사람의 무리를 말한다. (행 1:3)
4. 구브로 섬 출신의 전도자.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했다. (행 4:36)
5. 부로의 아들. 소아시아까지 바울을 수행했다. (행 20:4)
6. 슬모가 없어 내버려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행 4:11)
7. 괴롭고 어려움. 물리적이나 정신적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 (행 3:18)
8.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 '디두모'라고도 한다. (행 1:13)
10. 가위한테 지고 바위한테 이기는 것. 넓은 천으로 만든다. (행 10:11)
11.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기한다. (행 17:7)
13. 성경에서 이집트의 서쪽 지역을 두루 부르는 명칭. 지금의 북아프리카에 해당한다. (행 2:10)
14. 유대 사람이 아닌 민족을 성경에서 두루 부르는 명칭.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의 대표작 이름이기도 하다. (행 4:27)
15.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 세배대의 아들로 갈릴리호수의 어부였다. (행 12:2)
16. 찬란한 빛. 예사롭지 않게 빛나는 상황을 묘사할 때 이렇게 말한다. (행 22:11)
17. 고대 마케도니아의 수도. 지금은 그리스의 제2의 도시이다. (행 17:1)
19.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물건. 주로 재판정에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된다. (행 1:3)
21. 바퀴가 달려 사람이거나 물건을 운반하는 도구. 이것이 발달하여 자동차가 되었다. (행 8:28)
22. 어떤 일을 하느라 힘을 들임. (행 20:35)

청년부
여름수련회

DM : Influencer

2025년 여름, 주님의교회 청년부가 뜨거운 말씀과 깊은 기도로 무장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는 8월 15일(금)부터 17일(주일)까지 강원도 원주의 로템 힐링타운과 주님의교회 대예배실에서 열리는 청년부 여름수련회의 주제는 “Direct Messenger(Influencer)”입니다. 삶에서 복음을 살아내며 전하는 청년들(Direct Messenger)이 삶에서 선택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청년들(Influencer)입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김태섭 교수와 케어코너즈 사역자 이보람 목사가 강사로 함께하며, 말씀의 깊이를 더하고 삶의 실제적 적용을 돕는 귀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수련회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 안에서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며,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걸음 멈추어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함글함글



교회일정

8/15(금) - 8/17(주일) : 청년부 여름 수련회

알립니다

1. 2025 주님의교회 비전트립

필리핀 (유성훈) : 7/23(수) ~ 7/28(월)

필리핀 (몬탈반 - 청소년숲) : 8/3(주일) ~ 8/7(목)

필리핀 (송지형) 8/7(목) ~ 8/12(화)

키르기스스탄 (윤바나바) : 9/23(화) ~ 9/30(화)

2. '주님과함께' 큐티책 Season 2 정기구독 신청

일정: 7/27(주일)

장소: 1층 로비

3. 후문 출차 안내

시간: 오전 10시 ~ 오후 1시

문의: 유신식 안수집사(010.5219.3902)

* 후문은 출차만 가능합니다.

주차안내부의 안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4. 주방휴무

기간: 7/27(주일)~8/17(주일), 4주간

* 주방 바닥 공사로 인해 휴무합니다.

모집합니다

1. 주방봉사자(마무리팀)

시간: 주일 오후 12시 ~ 2시

문의: 서정하 장로(010.9554.9715)

2. 주차안내부원

시간: 1부(2명), 2부(3명), 3부(3명)

문의: 유신식 안수집사(010.5219.3902)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함글함글

발행인: 김화수

편집인: 임익수

발행처: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 416-5181~2 www.pcltv.org

편집: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pclhamletter@naver.com



PCL 주님의교회

공동체 소식

주님과함께 Season 2

‘주님과함께’ 큐티책 시즌1이 끝나고, 9월부터 시즌2가 시작됩니다. 시즌2에서는 독자참여 ‘큐티나눔’ 코너가 신설되고, 이달의 말씀, 사진으로보는 주님의교회 코너 등 많은 부분이 새롭게 변화합니다. 9월부터 큐티를 결단하시면, 6년 동안 성경 전체를 1번 통독하며 말씀의 여정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여행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박준범 목사 / 큐티사역부

Season2. 주님과함께
With the Lord

“함께하는 큐티 나눔에 초대합니다!”
2025년 9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큐티나눔’ 코너는 주님의교회 구성원들의 삶에 있는 묵상과 실제 삶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어떻게 참여하나요?
이달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묵상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구글폼으로 연결됩니다. 직접 묵상한 내용을 공개포함 550자 이하로 작성해 주세요. 참여여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내용이 실리나요?
참여자 중 매일 6명을 추첨하며, 묵상 나눔을 2개월 후 발행되는 큐티책 지면에 실어드립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특별한 선물!
선정되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큐티책 ‘주님과함께’ 6개월 정기구독권 (월간)을 드립니다. 구독자인 경우, 6개월을 연장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말씀 묵상이 누군가의 하루에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로 ‘큐티나눔’ 페이지를 함께 채워주세요!

큐티나눔 참여 QR
QR코드 스캔 후 아래주소 방문
큐티사역부(010-3954-7208)로
공지 주시면 참여 링크를
MAIL로 드립니다.

이달의 말씀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 여기에 실립니다.

사진으로 보는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의 새로운 길을 돌아보는 여행자들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큐티 나눔
매일 아침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이루어지는 큐티 나눔을 큐티책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달의 말씀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 여기에 실립니다.

사진으로 보는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의 새로운 길을 돌아보는 여행자들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큐티 나눔
매일 아침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이루어지는 큐티 나눔을 큐티책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달의 말씀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 여기에 실립니다.

사진으로 보는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의 새로운 길을 돌아보는 여행자들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큐티 나눔
매일 아침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이루어지는 큐티 나눔을 큐티책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Season2. 주님과함께
With the Lord

큐티책으로 함께하는 성경 통독
2019년 9월부터 시작되어 온 ‘주님과함께’ 큐티책이 2025년 8월호를 마지막으로 첫 번째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2025년 9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주님과함께’는 앞으로 6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합니다
주님의교회의 특별한 큐티책입니다.

이달의 말씀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 여기에 실립니다.

사진으로 보는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의 새로운 길을 돌아보는 여행자들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큐티 나눔
매일 아침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이루어지는 큐티 나눔을 큐티책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달의 말씀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 여기에 실립니다.

사진으로 보는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의 새로운 길을 돌아보는 여행자들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큐티 나눔
매일 아침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이루어지는 큐티 나눔을 큐티책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달의 말씀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 여기에 실립니다.

사진으로 보는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의 새로운 길을 돌아보는 여행자들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큐티 나눔
매일 아침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이루어지는 큐티 나눔을 큐티책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02호 십자말풀이 정답자

정현정 집사 (5교구)

십자말풀이와 함글함글 기사를 읽고 소감을 제출해주시는 분께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십자말풀이는 함글함글 지면에 답을 직접 쓴 사진을, 기사 소감은 아래한글이나 워드로 A4 1장 이상 분량으로 작성한 파일을 함글함글 메일(pclhamletter@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 직분, 교구,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